市政新聞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17면)



송파구의회 송파의정연구회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방문하고 있다.

송파의정연구회, 자원순환 모델 방향 논의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회장 이승희 의원)는 지난 16일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방문하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송파형 자원순환 모델'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승희 회장은 "자원순환은 단순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을 넘어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중요한 과제"라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우수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송파구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송파형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자원 재사용·재활용과 새활용 분야의 운영사례를 살피고, 송파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현장방문을 추진했다.

이날 일정에는 이승희 회장과 이희승 부회장을 비롯해 최옥주·박성희·위정희·김안나·박순례·정성일·정동배·박지선 의원이 참석했다.

홍준성 기자
/ roof1116@naver.com